예심심사평_제2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국내 경쟁 심사평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하는 합천 수려한영화제 경쟁부문에는 제1회 영화제에 비해 343편이 증가된 총 946편의 많은 작품들이 출품 접수되어 저희 심사위원들은 예심 기간동안 다양한 시선과 욕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재와 주제 면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의 시간을 반영하고 성찰하는 작품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생활 군상, 그로 인해 파생되는 외로움, 고립감,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변화된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팬데믹으로 인해 펼쳐지는 새로운 상황 외에도 그동안 알고는 있었던 사회의 어려운 현실이 펜데믹 상황으로 고통이 가중되거나 현실의 수면 위로 다시 재조명되는 이야기들이 꽤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작여건이 여의치 않은 탓에 한정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점도 특기할 만합니다. 그 외에도 영화의 단골 소재인 주거문제, 취업, 인권 등 아동, 가족, 여성, 장애인, 청년들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연대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은 편수를 차지했습니다.
예심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만듦새 좋은 안정적인 작품만큼이나 작고 투박한 영화들이 의미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서툴더라도 연출자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영화들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특히 배우들이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과 출연까지 했던 작품들에 유난히 후해졌던 마음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캐스팅 난황을 뚫고 앞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의 어두운 측면들을 잘 그려낸 수작들과 개성있는 연출로 눈에 띄는 작품들도 있었지만 그런 면들을 단순묘사하거나 소재활용에서 그치는 것이 많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또한 작년에도 언급한 바이지만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비해 절제미나 압축미가 부족해서 러닝타임이 긴 점 등이 전반적으로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예심심사위원들은 총 29편의 선정작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사회적 이슈를 장르적으로 영화화한 단편들, 연극적인 설정을 실험적인 영화적 확장으로 시도한 작품,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단면을 세밀하게 포착한 작품, 아이들의 시선에서 엿볼 수 있는 세상에 관한 우화 같은 이야기, 자신만의 뚝심있는 연출로 직진하는 영화 등 매우 다채로운 작품들이 합천에서 관객들과 조우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32편의 장편영화가 출품되었으나 작품의 완성도 부족, 기개봉작이거나 출품이후 개봉이 확정된 작품들로 인해 최종적으로 1편의 수작 다큐멘터리만이 상영작으로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작품, 더 많은 수의 장편이 경쟁부문에 오르진 못해 아쉬운 마음이나 경쟁부문 외에도 다양한 장편이 영화제에 초청되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영화를 완성한 모든 감독님들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역 경쟁 심사평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지역경쟁 부문은 총 26편의 작품(단편 23편, 장편 3편)들이 출품되어 경남 영화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경쟁부문에 상영될 선정작은 총 7편으로 단편 6편, 장편 1편입니다.

우선, 선정된 6편의 단편은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을 세심하면서도 과감하게 표현한 <생수>와 <균열>, 작은 섬마을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룬 다큐멘터리 <우도마을 다이어리>, 지친 일상에서 만난 타자와의 교감을 통해 변화되는 인물의 심리를 그려낸 <겨울잠>, 욕망으로 인한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악의 순환을 장르적으로 완성한 <청정구역>, 직장상사에 대한 복수를 코미디로 풀어낸 <복수의 방식> 등으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선정된 1편의 장편은 이상진 감독의 <창밖은 겨울>입니다. 담백한 연출과 자연스럽고 진정성있는 두 주연배우의 연기앙상블 등이 경남의 한 지역을 배경으로 잔잔하게 펼쳐지는 작품입니다.

지역경쟁 부문을 예심하면서 경남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작품과 영화인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반가운 기회를 가졌는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창작의 열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의 영화인들이 각각 고유한 개성으로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는 영화가 합천에서 전국의 관객에게 인상적인 영화적 울림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예심심사위원일동

조규장 감독 (영화 ‘목격자’ 연출)
홍성은 감독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 연출)
정승오 감독 (영화 ‘이장’ 연출)
신나리 감독 (다큐멘터리 ‘녹’ 연출)
이형석 프로그래머
유순희 집행위원장